

# 동방신기 팬클럽, "동방신기를 분열하려는 행동 멈춰라" 입장 표명

입력 2009. 11. 3. 10:01 · 수정 2009. 11. 3. 10:01



[스포츠조선 T-뉴스 백지은 기자] 동방신기 팬클럽 카시오페아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2일 팬사이트를 통해 공식입장문을 공개했다. 카시오페아는 "동방신기 멤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외하고는 다른 말은 믿지 않을 것이며 SM에서는 팬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분열시키려는 행동을 당장 그만뒀달라"고 밝혔다. 또 "윤호와 창민의 입장이라며 공식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한 SM에 대해 큰 실망과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번 소송은 13년이라는 계약 기간 때문이지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 낸 소송이 아니다. 2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SM은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동방신기를 분열하려는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동방신기 팬들은 2일 SM측에서 동방신기의 윤호와 창민의 입장표명문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사인의 위치와 이름, 문서가 친필이 아니라 워드로 쓰여진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SM측과 팬들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 < a href='mailto:silk781220@sportschosun.com' > silk781220@sportschosun.com >

< scnewsrank > ▲ LG와 롯데, 계륵페타지니-가르시아를 어쩌나 ▲ 늦깎이 FA 강동우,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을 원한다"

▲ 박지성, 모스크바와 챔피언스리그도 결장

▲ 이청용, EPL 9주차 베스트 11...선수랭킹 154위

▲ 선덕여왕 소화 죽음에 시청률 41.7% 고공 행진

[👉 웹신문 보러가기] [👉 스포츠조선 구독]- Copyrights ©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